

국정교과서 맞선 전국 4개 교육청 개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관심

# 5·18 내용 6쪽 게재 광범위하게 다룬다

전라도의병·학생항일운동 등  
광주·전남 지역주제 16개 확정  
23·24일 광주서 교재 워크숍

교수는 앞서 기존 통사·중앙 중심의 교과서 기술 방향이 아니라 지역별·특정 주제별로 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사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한 민족의 탄생과 성장, 고난, 좌절, 영광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집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는 “보조교재는 80개 특정 주제에 따라 서술되며 별도로 광주·전남·강원·충남 지역별 주제도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 민주·평화·인권·지역성 영역을 차별화하면서 구체화하는 제작 방침에 따라 16개 주제를 확정, 서술에 들어간 뒤 수정·검토가 진행중이다. 주제별로는 ▲고인돌 왕국 남도 ▲2000년전 타임캡슐 신장동 ▲전설로 남은 견훤의 땅 광주 ▲광주공원 내 성거사지 5층석탑의 비밀 ▲고려말 왜구침략과 정치 ▲최고급 분

청사기 생산자 충효동 가마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사단칠정논쟁 ▲한말 최대 의병항쟁지 어등산 ▲임진왜란과 전라도 의병 ▲서양총으로 불린 양림동 ▲정음성 5남매의 독립운동 ▲광주 3·1 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사라진 풍경, 경양방죽과 태봉산 ▲예향의 고장 남도 ▲금남로에서 꽃핀 민주주의(5·18광주민중항쟁) 등으로 나뉜다.

특히 5·18 광주민중항쟁의 경우 지역별 주제로 다뤄지면서 동시에 전체 80개 주제에도 포함돼 총 6쪽 분량으로 자세히 서술될 것이라는 게 집필위원 설명이다. 국정교과서는 고차 한 페이지 분량에 서술하면서도 의미를 축소할 것은 물론 악의적인 서술로 의미 또한 왜곡, 비판이 컸다.

보조교재는 이에 따라 ‘금남로에서 꽃핀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따라 ‘민주 성지’로

불리는 금남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5·18 광주민중항쟁을 비롯, 광주 4·19, 광주 6월 항쟁 당시 금남로 상황과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담아낼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음에도 단 몇 줄로 정리하는 등 의미를 크게 축소했던 호남 의병활동 기록도 ‘한말 최대의병항쟁지 어등산’이라는 주제에 2페이지에 걸쳐 서술된다. 집필위원들은 다음달 말까지 지역별 주제에 대한 수정·검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35명의 집필위원들은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워크숍’을 갖고 80개 주제별 내용을 검토·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중학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에 담긴 주제 선정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개인정보 불법수집’ 성문옥 광주시감사위원장 재판에 넘겨지기는 할까

검찰이 송치 늦춰달라며 제동  
경찰 수사 9개월...마무리 못해

“성문옥 광주시 초대 감사위원장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기는 할까.”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성문옥(57)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던 경찰 계획이 또 다시 검찰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검 공안부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 사건 송치를 늦춰달라”는 광주지검의 수사 지휘 때문이었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오전만 해도 “기소의견을 받아 급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경찰 수사는 이것으로 끝이고 검찰과 조율도 마무리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수사권을 쥔 검찰이 입장을 바꾸면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측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이 넘도록 수사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앞서 성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3월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조직전환 투표(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과정에서 시정 직원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지난 9월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성 감사위원장이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 노조가입비 소득공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올렸다.

감사위 공무원,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성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감사위의 노조비 납부 내역 확인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23조(민간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정한 ‘사상·신분,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4차례나 기소의견으로 올린 수사지휘 권의에 대해 모두 보완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행위를 감독하는 감사실의 정당한 직무행위인지 여부를 명확히 수사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의 일단 보완수사 지시로 수사 착수 9개월이 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자 공무원 단체 안팎에선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의도적으로 수사를 더디게 만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이 성 감사위원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성과주의 등 박근혜 정권 정책에 줄곧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전공노 측을 돕는 상황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형호기자 khh@

## 전남 또 AI 해남서 42일만에

진정세를 보이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에서 다시 발생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군 마산면 한 육용오리 농장 도축 출하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남도는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와 정확한 바이러스 유형 검사를 의뢰했다. 전남도는 또 이 농장 2만3000 마리를 포함해 반경 3km 이내 5농가 6만3000여 마리의 닭과 오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전남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42일 만이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겨울부터 7개 시·군에서 AI가 20건이 발생해 71개 농가 닭과 오리 132만4000마리를 살처분 했으며 보상금으로 109억원이 소요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방과후학교 가족체험 즐거워

21일 광주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과후학교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마술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 “돈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라” 피어 6000만원 흠쳐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아파트에 침입해 거액의 현금을 훔친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됐다. 70대 피해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 예금 전액을 출금해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사기단의 핏에 넘어갔다. 광주서부경찰은 21일 수사기관을 사칭한 일당과 공모해 집안에 보관된 현금을

을 꺼내 간 혐의다. 김씨는 경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아 은행예금을 찾아 집안에 보관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뒤 집을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된다는 은행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사건 발생 2시간 뒤 광주 송정역에서 서울행 고속열차에 오르려던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박씨와 갖고 있던 현금 3300만 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2700만원은 박씨보다 2시간 앞서 김씨 아파트를 다녀간 사기단의 또 다른 절도책이 김씨냉장고에서 꺼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외국인 늘자 범죄도 급증

경찰, 50일간 특별단속 15명 구속 등 251명 입건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A(33)씨는 자신들이 있는 곳에 ‘액뿔을 버렸다’는 이유로 가해자 4명으로부터 폭행당해 다리가 골절되는 등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강제추방을 우려해 1년

이 지나도록 신고와 치료조차 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를 가한 같은 국적의 B(33)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지난 1월1일부터 50일간 특별단속을 펼치고, 15명을 구속하는 등 외국인 범죄자 251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기간 강·절도·사기 등 도피 중인 수배자를 포함해 마약·도박·보이스피싱 등 주요 형사범, 불법출입국 사범, 기초질서와 교통 무질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사범이 45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사범 38명(16.3%), 대포폰·대포차 범죄 사범 36명(15.5%), 마약·도박 사범 29명(12.4%) 순이었다.

광주 거주 외국인은 2012년 1만4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외국인 범죄도 2012년 319건에서 지난해 603건으로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상근예비역이 경찰에 행패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라고 외치며 폭력을 행사한 31사단 상근예비역이 영장에 갈 위기.

○...21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조모(20) 일병은 이날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원동에서 광산경찰서 수원지구대 소속 유모(48)경위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맥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조 일병은 당시 술을 마시고 건다가 행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싸움을 걸었다가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아버지가 감시다.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확인 결과 조일병의 아버지는 일반 회사원으로 나타났으며, 군인 신분으로 드러난 조 일병의 신병은 군에 남겨져 군법에 따라 응분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투자가치 좋습니다!

###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번지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팟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지분 / 분할 매매 가능
- 매매 - 14억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나주, 전원주택단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건너편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백운동 25분,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전원주택 허가 필,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나주호 휴양림 / 들레길 진행중
- 매매 - 평당 8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 3년안에 대박 납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